**13. 나마하게관: 해설, 나마하게 개요**

나마하게는 고대로부터 오가 지방에서 신앙심을 결집하는 신잔이나 혼잔과 같은 산신들의 화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새해 첫 보름달을 축하하는 ‘정월 대보름’ 밤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는 음력 첫 달의 15일째에 해당합니다. 오늘날에는 2월 중순이 됩니다. 1873년에 일본이 양력을 채택한 이후로 나마하게도 새로운 체제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고 현재는 나마하게 행사가 12월 31일에 열리고 있습니다.

나마하게는 섣달 그믐날에 마을의 가가호호를 돌아다니며 액운이나 부정을 쫓고 풍년과 풍어를 초래하며 다가오는 해의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약속합니다. 또한 적어도 2세기에 걸쳐 계승되어 온 민속 의례를 통해 게으른 사람이나 말을 듣지 않는 자를 꾸짖습니다. 2018년 현재 나마하게 전통은 오가 지역의 90여 개 마을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나마하게를 통한 어린이의 훈육은 마을의 일원으로서의 도덕과 적절한 행동 및 태도를 심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편 어른들은 근면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길고 추운 겨울이나 그 밖의 어려운 자연조건을 견디기 위해 부지런히 일해야 하는 오가 지방과 같은 전통적인 농경 사회에서는 근면함이 매우 중요한 자질입니다. 나마하게는 집을 떠나기 전에 가족이 새해에 좋은 사람이 되기로 약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약속은 ‘새해 다짐’에 필적하는 소중한 다짐입니다.

오가의 나마하게는 1978년에 일본의 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내방신: 탈 및 가장의 신들’ 중 하나로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이것은 북쪽의 아키타에서 남쪽의 오키나와까지 8개 현을 둘러싼 9개의 유사한 전통 행사와 함께 인정된 것입니다.